

# “우리 주변을 바로 측정하고 大道를 제시하여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힘을 도서관이 길러 주어야”

겨우내 배란다에 떨어져 있던 난 화분에 꽃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인간 세상이 별의별 일로 시끌벅적 대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꽃피는 봄을 준비하고 있었나 보다. 지치고 피곤한 인간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들의 역할에 새삼 머리 숙여진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 요란을 떨며 다가오는 그 무엇이 아니고 긴긴 겨우내 준비하고 기다려 온 작은 몸짓 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30년전 우리는’ 지면의 집필자가 바뀌었다. 이는 《도서관문화》 편집팀의 재구성에 따른 것으로 1974년 한 해를 뒤돌아 본 작년에 이어 올해는 1975년으로의 여행을 떠나본다. 지면 사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인사드림을 양해해주시 바란다.

도서관협회,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1976년 IFLA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

30년전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의 3월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제7회 한국도서관상 후보자 심사를 위한 표창심사위원회, 1년 사업을 정리하고 신년 사업을 계획을 인준하기 위한 이사회 등이 차례차례 열리고 3월 18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1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이선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꾸준히 발전되어오고 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중에서도 오는 1976년도에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회의가 서울에서 본협회의 주관으로 개최기로 결정된 일은 매우 획기적인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를 우리 도서관인들의 노력으로 한국에 유치시켰다는 것은 도서관인들의 긍지를 한층 높였으며 침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발전적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할 수 있

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근 회장은 협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회원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1976년도 국제회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어서 류기춘 문교부장관은 격려사에서 정부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도 결국 도서관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도서관협회가 하나의 사회단체로서 도서관발전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1976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될 IFLA 총회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기능이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한만년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현행 도서관법이 우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도서관계 자체에서는 물론이지만, 출판계에서도 관계당국에 건의해 보았지만 현실적인 개정이 없음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이런 현안문제들도 거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1976년 IFLA 총회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라고 할 정도면 분명 도서관계로서도 경사이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mamket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2006 서울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2003년도부터 IFLA 연차총회가 WLIC로 대회 명칭이 바뀌었음. 필자 주) 유치에도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1976년 대회 때의 상황은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유치 관계자들이 애를 먹었음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보인다.

《도협월보》 1월호에 실린 글 〈제40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 참석보고〉에 의하면 소련대표가

한국에서의 개최에 반기를 들고 한국 대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 대표단은 이는 북한이 1970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IFLA총회 당시 IFLA에 가입한 후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에서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결국 1976년 IFLA 총회는 총회와 세미나가 반쪽으로 나뉘어져 총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세미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IFLA 디렉토리를 찾아 역대 총회 개최지 현황 목록을 보니 1976년 항목에 로잔만 기록에 있고 서울에 대한 언급은 없다. IFLA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공식 기록에 ‘서울’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 웬지 서글프다.)

그 외 《도협월보》는 도서관계 뉴스로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이 창간 10주년 기념 7대 사업의 하나로 각 지방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기증할 계획을 세워 도서관계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 충남지구협의회가 사서교사 연수회를 개최한 일, 1974년도 설립된 부산 동의전문학교(현 동의대학교)에 도서관이 신설된 일, 국립중앙도서관이 50일간 각급 도서관의 무자격 직원을 대상으로 준사서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회를 실시했다는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해방 후 한 세대 흘러 도서관 이전, 신축 활발

《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들춰보다 보니 그 당시 정치상황을 가늠케 하는 문구들이 자주 눈에 띈다. 《도서관》에 〈대통령각하의 1975년 연두시정 방침〉이, 《국회도서관》에 〈文世光의 遺言〉(崔世卿 국회의장 공화당)과 같은 글이 실려있는 것으로 대충 그때의 분위기를 짐작해 본다.

역사적으로 1975년은 광복 후 30주년 되는 해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국

력이 모아지던 때였다. 그만큼 우리 도서관들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을 것인데 1년 전 이전을 한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도서관을 비롯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국회도서관과 전국의 대표적 도서관들의 신년구상에 대한 글들을 살펴봄으로써 선배 도서관인들의 고민은 엿보고자 한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청사 이전과 함께 1974년 12월 21일자로 도서관직제를 개정하여 관장을 일급으로 승격하게 된다. 이어 바로 취임한 16대 오성식 관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도서관인은 문화의 역군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 발전과 그 발전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중략) 본인은 공공도서관이 국가가 근대화의 핵심과업으로 추진하는 새마을 운동에 효과적이며 유기적으로 참가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도서관이 민족의 근대화와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자고 당부하였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신년도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청사이전문제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국회의사당이 태평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도서관측은 의사당과는 별도로 도서관건물이 신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당장은 여의치가 없었다. “즉 여의도 자체가 그 입지조건적으로 보아 습기가 많은 수증기대인데다가 더구나 지하라는 조건 때문에 도서와 상극이 되는 습기 제거를 위한 환풍처리가 인공으로는 불가항력이 될 것이므로 20여년간 애써 모집하여 온 우리의 수집하여 온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의 훼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성택경 국회도서관 참고서지과장의 말에서 보듯이 국회도서관의 자리매김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결국 도서관은 그 해 9월 15일 신축 국회의사당 지하 1층과 지하 1.2층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13

년 후인 1988년에 가서야 단독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

관악산 새 캠퍼스로 이전한 서울대학교도서관은 “장서 확충을 위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매년 도서 5만책 정도와 잡지 약 5천종을 확보하여야 하며 약 6억원이 소요되는 바 금년도 국고 예산을 보면 감감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비좁은 건물에서 웅색한 살림을 하다가 별안간 크나큰 도서관 살림을 꾸려 가게 되어 희망과 함께 근심이 뒤따른다고 하였다.

서울시립남산도서관의 경우는 그나마 한숨 돌린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그동안 서울특별시에서 3개 서울시립 도서관 운영비로 서울시교육위원회로 교부되어 오던 6천1백80만원의 전입금이 1973년부터 완전 중지되었는데, 1975년 교육위원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남산도서관의 경우 1974년 당시 도서구입비가 총예산의 5.3%에 불과한 3백50만원뿐이었다고 하니 직원들의 속이 얼마나 탔을지 짐작이 간다.

1974년 3월 1일과 8월 15일 각각 신축 개관한 대구시립도서관과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도 내적 충실을 기하는 해로 정하였는데, 1974년 6월 1일 개관한 영등포도서관이 신년포부로 도서관이 강남일대의 유일한 시민문화센터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눈을 끌었다. 1975년 당시 600만 인구의 서울에는 도서관이 총 4곳이 있었는데, 그중 3곳(남산, 종로, 동대문)은 강북에 있었고 강남에는 영등포 도서관 한 곳 뿐이었는데, 그것도 광범한 봉사지역의 한쪽에 편재되어 있어 인구 백만을 넘는 강남일대를 상대로 하기엔 역부족이었을 듯 싶다.


공공도서관들의 현안이 좌석과 장서의 확충이라면 대표적 전문도서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현 KISTI의 전신)의 신년 계획인 ‘정보서

비스의 기계화'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터매트렉스'(termatrex)와 '카드'(card) '실렉터'(selector)와 같은 간이정보검색기를 이용하여 가장 요구가 많은 특정 주제 분야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두었다가 검색 제공하는 사업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축적·검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입수되어 축적된 정보가 기계적으로 검색될 수 없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기술일 수도 있지만 《국회도서관보》 1975년 2·3월호에 실린 글 〈도서관과 기계화〉 내용("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수년 전부터 도서관의 기계화(혹은 도서관의 자동화)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도서관 업무를 기계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에서 유추해 보건대 그 당시 도서관계에서는 꽤 선두주자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국회도서관보》가 전하는 도서관계 소식으로는 '한국잡지협회 정기총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연구실(1일 사용료 5백원), 세미나실(1일 사용료 3천원) 개설' '경북대 도서관학논집 제1집 발간' '한국 최초의 노동도서관 개관' 정도가 있었다.

문헌의 소재를 알리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공헌해야

이번 호의 마무리는 《도서관》 2월호에 실린 〈바람직한 도서관상〉의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한태동 연세대학교도서관장은 이 글에서 "즉 大學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문을 모아주는 곳이 곧 학문을 연결시키는 소임도 있다고 본다. 어느 한 분야가 급성장하여 타분야를 지배한다는 것보다는 모든

학문의 자료를 비장해 놓은 곳에서 학문의 상호교류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책만을 모아두는 곳을 넘어서서, 학자들이 모여 학문간의 대화를 통하여 학문을 연결시키는 장소이어야 한다. (중략) 그리고 도서관은 현실에서도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옛 집현전이나 홍문관에서도 그 당시 국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전통을 되살펴 보고 우리 민족이 걸어 갈 길을 밝혀본 점을 상기할 때 우리 주변을 바로 측정하고 대도를 제시하여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힘을 도서관이 길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내 도서관, 내 업무, 내 책상에만 코를 박고 있는 나머지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며 사회 현실에 참여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소홀히 하기 쉬운 우리 후배 도서관인들에게 큰 깨우침을 준다. 

[글 : 박경아 협회 팀장, kapark@dreamwiz.com]